



추석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7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청과류 매장이 경기침체와 폭등하는 제수용품 가격 등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석 장보기가 겁나요”

불경기에 제수용품 값마저 폭등

명절 특수 사라져 ‘엄동 한가위’

“을 추석 장보기가 겁나요. 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물가가 올랐잖아요.”

7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만난 주부 김모(40·광주 북구 두암동)씨는 수자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결국 밭값을 들었다. 지난주 5천원 하던 배추(특1등·1단)가 무려 2천800원(56%)이나 오른 7천800원이라는 말에 더 이상 시장을 둘러볼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광주시·전남도 등 지자체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21개 주요 상수품 가격 관리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제수용품 가격이 전점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처럼 제수용품 가격이 치솟은 데다 최악의 불경기로 추석특수마저 실종돼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재래시장 등지의 상인들도 때 아닌 ‘엄동 한가위’를 맞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3일 파악한 추석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15kg 1박스)는 4만2천원, 사과는 8

| 품 목 | 지난해 동기기준 | 현 거래가 | 인상폭(%) |
|----------------|----------|----------|--------|
| 고사리(100g) | 6천800원 | 8천원 | 17.6 |
| 무(1개) | 700원 | 1천원 | 42.8 |
| 포도(5kg) | 1만8천원 | 3만원 | 66.6 |
| 대추(1kg) | 1만5천원 | 1만7천원 | 13.3 |
| 밤(1kg) | 4천원 | 4천500원 | 12.5 |
| 돼지 삼겹살(kg) | 1만3천원 | 1만7천900원 | 37.6 |
| 쇠고기 양지머리(100g) | 3천500원 | 3천750원 | 7.14 |

(자료:농협하나로마트)

만원, 감귤은 2만5천원에 판매되는 등 지난해보다 2천원~1만원 올랐다.

수산물 가격도 덜아 뛰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8만원선에 가격이 형성됐던 조기(10kg 1박스)는 현재 9만1천원을 쥐어 산다. 오징어(8kg 1박스)도 지난해 1만9천원 했으나 2천원 인상된 2만1천원이다.

육류 가격의 경우 지난해 kg당 1만 3천원이었던 삼겹살은 38% 오른 1만7천9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국거리로 쓰이는 쇠고기 양지머리(100g)도 지난해 3천500원이었으나 올해는 66% 폭등한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제수용품 가격이 치솟은 데다 최악의 불경기로 추석특수마저 실종돼 추석대목을 기대했던 재래시장 등지의 상인들도 때 아닌 ‘엄동 한가위’를 맞고 있다.

광주시가 지난 3일 파악한 추석 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15kg 1박스)는 4만2천원, 사과는 8

사정이 이렇다보니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앙동시장은 물론 재래시장이 찬바람을 맞고 있다. 시장을 찾은 손님들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살피고 가격을 물기만 할 뿐 좀처럼 지갑을 열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70·여)씨는 “추석이 1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가게를 찾는 손님이 손꼽을 정도다”며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오른 흥어를 작년 수준의 값으로 팔아도 사가는 손님이 없다”고 유통을 지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상반기 교육비 15조원 돌파

교육비가 상반기에 15조원을 돌파하면서 가계소비지출에서 사상 최고의 비중을 차지했다.

또 교통비와 식료품·음료의 지출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 영향으로 각각 8년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났다.

7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에 교육비 지출액은 15조 33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13조 7천772억원에 비해 9.1% 늘어났다.

이 증가율은 지난 2003년의 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비 지출 증가율은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2.2%를 나타냈으나 2001년에는 15.9%로 솟았으며 2006년 8.5%, 2007년 8.2% 등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액으로는 지난 2002년 9조3천 400억원에서 2003년 10조3천918억 원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울돌목 거북배’ 독도 지킨다

전남도 368t급 건조… 29일 170명 태우고 독도로

전남도가 만든 거북선이 ‘독도 지키기’에 나선다.

전남도는 거북선의 형상을 본 폐 만든 ‘울돌목 거북배’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호국정신을 알리기 위해 이달 말 독도로 출항한다고 7일 밝혔다.

독도 지킴이로 나선 ‘울돌목 거북배’는 전남도 산하 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 목포에 있는 고려조선(주)에 발주해 최근 건조를 마쳤다. 이순신 장군의 전적지인 ‘명량(鳴梁·울돌목) 대첩’의 이름을 딴 368t급 ‘울돌목 거북배’는 현대판 거북선인 셈이다.

‘울돌목 거북배’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독도를 향한 대장정에 오른다. ‘거북배’는 전남도 관계자와 도민 등 170여명을 태우고 목포 항을 출발, 경북 포항과 울릉도를 거쳐 독도에 접안할 예정이다.

독도에 접안한 후에는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장렬히 순국한 조선 수군과 선인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또 거북선의 위용을 드러내는 장면을 묘사한 용머리 살수행사, 강강



7일 목포 해양경찰서 전용부대에 정박중인 현대판 거북선인 ‘울돌목 거북배’의 위용. /위치랑기자 jrwi@kwangju.co.kr

술래 등 거북선 관련 행사도 준비중이다.

전남개발공사 관광기획팀 나상문 과장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이 달린 거북선을 타고 독도를 방문,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고 오겠다”고 말했다.

‘울돌목 거북 배’는 총 길이 49m, 폭 10m로 모두 174명(선원 4명, 관광객 170명)의 인원이 승선할 수 있다. 거북선 원형을 최대한 살린 ‘울돌목 거북배’는 전국 최초로 영업 허가를 받아 상업 운항도하게 된다.

특히 선체 하부는 강철, 상부는 알루미늄으로 제작해 무게를 최소화하는 등 울돌목 등 유속이 센 바다의 지형을 견딜 수 있도록 건조됐다. 주요 시설로는 3D 입체영상관을 비롯한 여객실, 기념품 판매점, 개폐식 전망대(가로 15m, 세로 10m), VIP실 등을 갖췄다.

독도 운항을 마친 ‘울돌목 거북배’는 10월 이후 이름에 걸맞게 명량대첩의 현장, 해남~진도 울돌목 해역에 배치된다.

/목포=이종행기자 golee@

“오쿠이 ‘명품 전시’ 하루라도 빨리 보자”

미술학도 2천명 광주로… 광주로…

광주비엔날레 ‘현대미술 교육의 장’

07
연례보고
08

개막 4일째를 맞은 2008 광주비엔날레가 전국 미술학도들의 생생한 현대미술 교육의 장으로 떠올랐다.

〈관련기사 5·7·16면〉

개막 후 첫 주말과 휴일인 6~7일 2008 광주비엔날레에는 세계적인 큐레이터인 오쿠이 앤워저의 ‘명품 전시’를 하루라도 빨리 보기 위해 전국에서 미술학도 2천여명이 광주로 몰려들었다. 학생단체관람의 경우 개막 중순부터 몰려들었던 예년과 비교해 보면 사뭇 다른 현상이다.

이는 오쿠이 감독을 영입해 이례적으로 ‘주제 없는 비엔날레’를 내건 이번 광주비엔날레가 프레스오픈을 통해 국내외 언론에 호평을 받자 미술학도들이 일정을 앞당겨 관람에 나선 것이다. 특히 고든 마타 클락, 한스 하케 등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전시된 것도 이들의 발길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대회보다 약 3만명이 늘어난 20만명의 미술학도와 관계자들이 올해 비엔날레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체관람객 맞이에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7일 재단에 따르면 지난 6일 흥의 대학교, 계원조형예술대학, 광주여자대학교 등 6개의 국내 대학 미술학도와 일본 규슈대학의 대학원인 예술공학 연구원 학생 등 모두 1천200여명이 비엔날레를 관람했다.

이는 광주비엔날레를 도입한 이번 전시 기획에 흥미를 보였으며, 현대 미술의 역동적인 흐름을 담은 각양각색의 출품작들

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국민대 시각디자인과 재학중인 신지원(22·서울)씨는 “고든 마타 클락이나 한스 하케 등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다”면서 “이번 작품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 친근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휴일인 7일에도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구열이 광주를 뜨겁게 달궜다. 상명여대 의류학과 등 4개 대학에서 온 800여명의 학생들이 전시장을 돌아 현대 미술의 진수를 만끽했다.

8일에는 계원대학교 디자인학과 203명, 경기도 두레자연종학교 100명 등 500여명의 학생들이 단체관람에 약을 마치고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앙대, 국민대, 동아대, 계명대 등 국내 대부분의 미술학과 학생들이 관람 일정을 재단과 협의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올 추석엔 6년근 명품홍삼 정관장으로
몸과 마음에 남는 선물하세요

[건강가득 사랑가득] 대잔치 2008. 8. 28 ~ 9. 13

【한시】 정관장 1만원 상품권 증정(1000명) 구매금액의 15만원당 정관장 1만원 상품권을 증정합니다(역삼점, 미원마트, 백화점)
【한시】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5만원이상 구매고객 BC, 신한, 국민, 삼성, 카드
【한시】 거창경에서 둘째복주걸 상품은 외상증정으로 정관장 상품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시】 키링, 캐릭터슬리퍼, 고백상금상 1568-2304, 080-041-0303

내일을 여는 힘
정관장